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맑은 하늘이 드리워진 풍요의 계절,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가족의 노고 덕분에 조례의 취지와 가치가 학교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이제 경기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인권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인권운동가 에릭 슈로셔(Eric Schlosser)는 “상대방이 바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바보 같아 보일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되며, 진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부딪치면서 찾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의 시작을 보면 모두가 한두 명의 의지와 실천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학교에 인권 문화를 꽃피우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초저녁 지평선을 따라 흐르는 가을 은하수가 아름답습니다. ‘2018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을 맞이하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